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번엔 정말 안 그럴게!” 하고 다짐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도, 친구 관계도, 신앙생활도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 읽겠다고 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세대가 지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평안해지면 또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반복이 계속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관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친구들의 말, SNS의 인기, 성적과 비교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길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지만, 동시에 사사를 세워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습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멈출 수 없네 다 같이

말씀봉독 사사기 2:11~23절 다 같이

설 교 반복되는 실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설 교 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